

# “바닥민심 잡아야 당선의 영광”... 영광군수 뜨거운 경쟁

### 민주·조국혁신당·진보당, 군수선거 ‘진보 텃밭 잡기’ 전국구 관심 지지선언 등 세 불리기 치열...지도부 방문·농정 이슈 등 민심잡기 행보

다음달 열리는 영광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간 ‘세 불리기’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민주당이 일부 청년단체들의 지지 선언을 이끌어 내자 조국혁신당도 질세라 무소속 후보의 지지 선언을 이끌어내며 맞불을 놨다. 영광은 호남의 ‘집권여당’이나 진보당 등 나머지 ‘아권’ 세력 정당 후보들 간 형성된 ‘진보 텃밭 잡기’ 경쟁 구도 때문인지 중앙 정치권에서도 주목을 받는 ‘핫 플레이스’로 떠올랐다.

25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양재휘 영광군수 예비후보는 지난 23일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현 조국혁신당 예비후보 지지 선언했다.

양 후보는 무소속으로 군수 출마를 준비했다가 이날 조국혁신당 입당을 결정했다.

앞서, 장세일 민주당 후보는 지난 22일 영광연합청년회 등 7개 영광지역 청년단체들의 지지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양 후보가 장현 후보 지지선언을 통해 “전국이 부러워하는 영광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면 장세일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 청년단체들은 “영광 골목골목까지 파악한 세심한 공약을 내리라 믿는다”

고 지지 입장을 피력한 상황이다.

조국 대표를 비롯, 조국혁신당 국회의원들이 최고위원회를 영광에서 열고 ‘월세살이 선거운동’으로 민심 잡기에 나서자 민주당에서도 민주당에 호락호락하지 않은 민심을 감안한 듯 이재명 대표가 참여하는 최고위원회와 1박 2일 유세를 이어가는 등 텃밭 사수에 공력을 기울이는 분위기다.

영광의 경우 지난 8회(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무소속(강종만), 6회(2014년) 지방선거 때는 무소속(김준성) 후보에게 지역을 맡겼고 7회(2018년) 때도 무소속(김준성) 후보가 민주당으로 옷을 갈아입고 당선된 바 있다.

지난 2022년 사·도의회 선거에서도 진보당(오미화)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지방의회에 입성했다. 정치권에서 존재감을 갖춘 박지현 의원, 정정래 의원 등도 틈을 내 영광을 찾는 점도 이런 지역 정서와 무관하지 않다는 게 지역 정치권 판단이다.

진보당에서는 농민회 출신 이석하 후보가 농민수당, 비밀주 피해 대책, 고추수매 등 농정 현안을 이슈로 내세우며 민심 다지기 행보를 진행 중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국회의원 한동훈 대표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미나를 마치고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尹-韓 맹탕 만남’ 당정관계 우려만 증폭

### 국힘 “주파수 너무 달라...독대 불발 아쉬워” 뒷말 무성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의원 한동훈 대표 등 지도부 만찬이 정국 현안에 대한 논의 없는 식사 자리로만 끝나자 당내에서 당정 관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상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만남은 당정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자리로 평가받았지만, 지난 24일 만찬 회동에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의료 개혁과 김건희 여사 의혹 등의 민감한 현안을 논의하거나 독대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불편한 당정 관계만 드러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중혁 최고위원은 25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실과 당이 상황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다른 것 같다”면서 “의료 개혁도 당 입장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이고, 대통령실은 개혁이니까 그냥 밀고 가야 한다”는 입장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김 여사 의혹도 당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생각이 있지만, 대

통령실에서는 허위 사실이나 당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 강한 것 같다”면서 “상황인식이 서로 다르다 보니 이렇게 절그러운 부분이 연출되는 것 아닌가”라고 질었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채널A 유튜브 방송 ‘정치시그널’에 나와 “실제 만찬 분위기는 열렸는데 대통령실이 화기에 애했다고 해서 화기에 애한 것으로 되지는 않을 것 같다”며 “애당초 만찬에서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의미 있는 결정을 하기가 힘든 상황이었던 때문에 한 대표가 별도로 독대 요청을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대통령실과 당 대표실의 주파수가 너무 다른 것 같다”며 “대표실 입장에서는 만찬에서 현안 논의를 하고 싶어 했고, 대통령실은 원전 등 외교 성과를 설명하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내에서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 불발

된 것을 두고 아쉽다는 반응도 이어졌다.

만찬에 참석했던 장동혁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에서 “실외에서 다수가 만찬을 하는 상황이어서 현안을 논의할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독대가 안 된 점이 더 아쉽다”며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만나 정국을 풀어갈 수 있는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 대표는 오후 6시 만찬장에 일찍 도착했다. 후시라도 대통령이 일찍 와서 ‘나하고 잠깐 얘기합시다’라고 하는 상황을 내심 기대했던 것 같다”며 “만찬 이후에도 한 대표는 대통령이 (따로) 보자는 것을 기대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만찬 후 대통령이 갔고, 그래서 한 대표가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대통령과 현안에 대해 이야기할 자리를 만들어달라고 한 것”이라며 “이 사실이 나중에 알려지게 되면 또 언론 플레이했다고 할 테니까 한 대표가 ‘언론에 내가 얘기하겠다’라고 고도 했다”고 전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여의도 브리핑

### 양부남 “北 오물풍선에 수도권 공항 20차례 중단”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로 인천-김포공항 운영이 올해 들어 총 20차례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울) 의원이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3일까지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인천-김포공항 활주로의 운영이 20회 총 413분간 중단됐다. 항공 당국은 오물 풍선이 일정 거리보다 가깝게 공항에 접근할 경우 안전을 위해 활주로 운영을 중단하고 있다. 항공청은 오물 풍선 살포가 있던 지난 6월 1일 밤 10시 48분부터 54분간 인천공

항 활주로를 처음으로 운영 중단했으며, 이튿날 오전에도 오물 풍선 살포가 이어져 두 차례에 걸쳐 37분간 활주로 운영을 제한했다.

가장 최근 공항 운영이 중단된 것은 지난 23일이며, 이날 인천공항 활주로는 오전 5시 25분부터 5차례에 걸쳐 총 90분간 이착륙이 제한됐다.

/오광록 기자 kroh@



### 안도걸 “숨은 빚’ 사내대출 1조8000억 육박”

사기업과 공공기관의 ‘그림자 가계부채’ (사내 직접대출) 규모가 매년 증가하며 지난해 1조800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안도걸(광주 동남울)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SGI 서울보증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사기업의 대출 규모는 2023년 1조3922억 원을 기록하며 2019년 대비 7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큰 비중을 차지한 주거 관련 대출이 2022년 7402억 원에서 2023년에는 9827억 원으로 전년 대비 32.7% 증가했다. 반면 공공기관의 사내 직접대출 규모는 2022년 대비 21.2% 감소하며, 2022년 4903억 원에서 2023년 3864억 원으로

줄었다. 생활안정 및 주택자금 용도의 대출이 모두 감소한 모습을 보인 것은 2021년부터 공공기관에 도입된 시장금리(분기별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로 기존 저리에서 인상된 여파로 풀이된다.

1인당 대출액 또한 전년 같은 분기 대비 4752만 원에서 5344만 원으로 12.4% 증가했다. 금리인하 기대감으로 주택시장이 과열 양태를 보이며 관련 대출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



## 답페이크 ‘성 착취물’ 알고도 소지하면 징역

### 성범죄 특례법 법사위 통과

답페이크 성 착취물인지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하면 최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 합의로 처리된 만큼 개정안은 26일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답페이크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 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여야 의원들은 법안 대체토론 끝에 14조의 2, 제4항에 ‘알면서’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답페이크 성 착취물인지 몰랐는데도 이를 저장 혹은 시청했다가 수사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한 것이다.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 경력 요건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한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연합뉴스

#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충분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창간사 | 조선의 기획특집 | 김중... 강정호... 박철영  
 초대사 | 박인숙... 진혜진... 오현정  
 포커스 | 양승민... 윤정민... 권소하... 윤석순... 이장지... 신영욱  
 새만금원보, 조선의 시인의 꽃 감상 | 윤상선 신영욱 권소하 김경희 김진택 윤석순 문혜정 이상자 안미숙 윤정민 이석영 양승민 이영순 신영욱 최진호 최호민 이재형 김은수 임정숙 권소하 정혜숙 윤상선 이석영 김경옥  
 시단 | 윤상선 김진택 정원의 이석영 김시연 이재형 최진호 김지영 김우재 이영순 김계은 강혜숙 김은수 김지연 안미숙 최호민 서은주 윤수현 황다연 김혜숙 김 은 김여정 박은경 박성애 최명희 최옥경  
 신인문학상 | 임정숙... 문혜정... 홍미숙... 강성남... 김경희  
 문학평론 | 박철영